

베테랑이라는 이름의 무게



4일 오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이범호가 연장10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좌월 솔로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이범호, 연장 역전홈런 치고도 고개 못 들어 팀 3연패 때 타율 1할 부진 “미안해서 웃지 못해”
“개인 기록·팀 성적 위해 힘 닿는 데 까지 땀 것”



역전 홈런을 치고도 웃지 못하던 ‘홈런 타자’, “패를 끼치면 안 된다”며 올 시즌 각오를 다지던 19년 차 이범호였다.

지난 4일 KIA 타이거즈는 4연패 위기에 몰렸다. 전날 SK 와이번스에 6개의 홈런을 허용하며 3-13 대패를 기록했던 KIA는 이날 3회에도 로맥에게 스리런을 맞는 등 1-5로 초반 분위기를 내렸다.

이틀 연속 선발이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나면서 어렵게 풀어진 경기. 하지만 올 시즌 첫 1군 등판에 나선 한승혁이 커브로 상대를 현혹하며 4이닝 1실점으로 허리 싸움을 책임졌고, KIA는 8회 승부를 6-6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연장 10회 선두타자로 나온 이범호가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KIA가 마침내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KIA는 백용환, 버나디나, 김주찬의 안타를 묶어 9-6까지 점수를 벌이며 승리를 거뒀다.

이범호의 홈런은 연패 탈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3루 관중석과 KIA 덕아웃을 환호케 만든 주인공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고개를 숙인 이범호는 동료의 환호를 받고 덕아웃에 들어와서도 웃지 않았다.

팀이 3승 3패를 기록한 지난주 이범호는 단 두 개의 안타밖에 때려내지 못했다. 팀이 3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이범호의 타율은 0.100(10타수 1안타)에 불과했다. 이날도 홈런을 기록하기 전 4타석에서 모두 침묵했던 만큼 이범호는 ‘미안함’에 웃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이범호는 기쁨보다는 미안함을 이야기하면서 앞선 부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범호에게 2018시즌은 도전의 시즌이자 고민의 시즌이다.

이범호는 지난 시즌 소원 성취를 했다. 몇 년간 입버릇처럼 “우승을 해보고 싶다”고 말해왔던 이범호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만루 사나이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이범호는 5차전에서 부진을 날리는 만루포를 쏘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간절했던 목표 하나를 이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꿈들이 있다.

이범호는 “새 시즌을 맞는 마음은 매년, 1년, 1년 똑같다. 성적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나에게 남은 목표들도 많다”며 “2000게임, 3000루타, 2000안타 등 해야 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내가 힘닿는 데 까지 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19번째 시즌과 베테랑으로서의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시즌이 쌓여가면서 베테랑의 고민도 더해지고 있다.

이범호는 “야구는 옛날보다 쉬워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고참이 되면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힘에 부치고, 힘들 것 같거나 하면 그만해야 하는 시기도 잘 잡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다. 팀에 패를 끼치면 안 된다”고 베테랑의 고민을 토로했다.

이범호는 3년 연속 팀의 주장을 맡으며 팀을 한 데 묶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지금도 그는 후배들이 믿고 따르는 든든한 선배이자, 조언자이다. 훈련 시간에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그는 그라운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욕심 많은’ 선수다.

결정적인 순간의 한방 그리고 미안함에 숙였던 고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이범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소식

오승환 1이닝 무실점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하루 휴식 후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를 펼쳤다.

오승환은 5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3으로 맞선 7회초 마운드에 올랐다.

앞서 선발투수 에런 산체스가 6이닝 3실점 하고, 타선이 6회말 3점을 뽑아 내면서 동점을 만든 상황이었다. 오승환은 17개의 공으로 1이닝을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지켰다.

첫 상대 팀 앤더슨은 4구째인 시속 138km 슬라이더로 유격수 땅볼 처리했다. 애덤 엔겔예겐 1볼-2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41km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좌전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요안 몬카다를 ‘삼구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아비사일 가르시아도 2볼-2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6km 포심 패스트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끝냈다.

오승환은 지난 2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첫 세이브를 올리고, 3일 화이트삭스 전에서는 1이닝 1피안타(피홈런) 2사구 1실점으로 흔들렸으나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팀은 3-4로 패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시즌 첫 홈런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첫 홈런을 폭발했다.

추신수는 5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1-6으로 밀린 9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추격의 솔로포를 터트렸다.

추신수는 오클랜드 우안 투수 유스메이로 프티에게서 볼 하나를 끌라낸 뒤 2구째 시속 129km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 뒤로 넘겼다.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방향이를 휘두르는 레그킥 타격 폼을 새로 장착한 추신수의 올 시즌 마수결이 홈런이다. 그러나 이후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텍사스는 2-6으로 패했다.

추신수는 3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사구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16에서 0.318(22타수 7안타)로 조금 올랐다.

지난 3일부터 3경기 연속으로 푼타자로 나서고 있는 추신수는 전날 경기에서는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이날 홈런으로 다시 타격감을 되살렸다.

추신수는 1회초 오클랜드 손 머니어의 공에 몸을 맞아 출루했다. 3회초에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3루수 땅볼로, 6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유격수 땅볼로 풀러났다. /연합뉴스

오타니 이틀 연속 홈런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이틀 연속 홈런을 쏘아 올렸다.

오타니는 5일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5회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

상대는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클리블랜드의 오른손 에이스 코리 클루버였다. 오타니는 클루버와 1볼-1스트라이크로 맞서다가 3구째 시속 약 147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이 홈런으로 에인절스는 0-2에서 2-2 동점을 맞췄다.

앞서 오타니는 3회말 첫 타석에서는 루킹 삼진을 물러났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통쾌한 홈런으로 설욕했다.

오타니는 지난 2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첫 선발 등판해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전날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우완 조시 톨린을 상대 우중월 3점포로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장식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 투어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 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맷 피치알리(오른쪽)가 타이거 우즈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관’ 피치알리, 우즈와 연습라운드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막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제82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현직 소방관 맷 피치알리(31)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와 연습라운드를 했다.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워드는 “피치알리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우즈, 프 레드 커플스와 함께 연습라운드를 돌았다”고 보도했다.

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 마스터스에 피치알리는 지난해 미국 미드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출전 자격을 얻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록턴 소방서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이라 대회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된 인물이다.

대학생 시절까지 선수로 활약한 피치알리는 2009년 졸업 후 2012년까지 월요 예선 등에 도전하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

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2014년 소방관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US 미드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올해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얻었고 이를 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연습라운드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우즈와 함께하는 행운을 누렸다.

피치알리는 “며칠 전에 우즈의 캐디와 연습라운드 약속을 했지만 오늘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실제로 우즈와 함께할 수 있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우즈는 9월 연습을 마친 뒤 “맷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골프 실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했다.

우즈는 지난해 피치알리가 미드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뒤 축하 편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치알리는 “우즈가 나와 캐디인 아버지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다”고 고마워했다. /연합뉴스